

수다스런 그녀들의 '목요일 유화'

광주 시립미술관 문화센터 '목유회' 일곡갤러리서 '그녀들의 수다' 일주일에 한번 동호회 활동 공유 2011년 강좌 개설... 전시회 꾸준

엄마, 아내, 주부, 여교사, 간호사, 할머니, 경단녀... 이들을 표현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적어도 목요일엔 말이다. 광주시립미술관 문화센터에서 유화강좌를 듣는 20여명의 여성들은 동호회 '목유회'를 결성, 목요일 오전마다 '수다스러운 시간'을 보낸다.

특히 올해는 봄에 17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단체 전시회를 열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못했으니 지난해 연말 발표회를 제외하면 2019년 이후 오랜만의 전시회다.

'그녀들의 수다'전이 오는 24일까지 북구 일곡도서관 1층 일곡갤러리에서 진행

된다. 회원들의 유화작품 33점이 걸렸으며 목유회를 지도하는 강남구 작가의 만개한 '매화'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회원들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숲, 나무, 꽃, 골목길 등 평범한 풍경들을 유화로 담아냈다.

'수다'는 목유회 회원들이 만들어 나간 목요일의 시간을 의미한다. 단순히 취미 생활을 하는 시간은 아니다. 저마다 삶의 보따리를 풀어 캔버스에 그려내니, 전시회를 할 때마다 작품들이 서로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듯 수다스러운 풍경이 된다.

2011년 시작된 문화센터 유화강좌가 시작이었지만, 뭉치니 '여성'들이었다. 여성들만 들을 수 있는 유화강좌는 아니었던 것.

회원 강현숙 씨는 "사회 각 분야의 여성들이 있고 연령층도 다양하다. 남성 회원 딱 한 분이 있었는데, 중간에 나갔다. 결과적으로 여성들만 모였다"며 "봄이면 도



광주시립미술관 문화센터의 목요일 유화강좌에서 시작된 '목유회'의 활동 사진.

목유회 제공

시락을 싸 소풍도 가고 교외로 전시회도 보러 가면서 서로 끈끈해졌다. 초창기 멤버가 지금도 있다"고 말했다.

아마추어 전시회라지만, 목유회는 오랜 시간 성장해왔다. 회원 조옥희, 채명희,

강현숙씨는 2022년 순천미술대전에서 입상해 상을 받기도 했다.

특히 강현숙 씨는 목유회 활동 이후 미술평론에 관심이 생겨 지역 잡지에 2년째 미술 관련 원고를 쓰고 있다. 미술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다.

목유회 왕언니라 불리는 80세 정승은 씨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결석 한번을 하지 않았다.

목유회를 지도하는 강남구 작가는 "광주시립미술관 문화센터의 목요일 강좌인 유화반이 참 오랜 시간을 보내왔다. 회원들은 10년 넘게 활동한 분도 있고 신입도 있고 연령층, 종사 분야 등 참 다양하다. 한가지 공통점은 열정적이라는 것"이라며 "이번 전시회는 일곡갤러리 공모를 통해 마련했다. 전시회를 찾은 관객들도 마음속에 찾아온 봄을 마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녀들의 수다'전에 참여하는 17명의 목유회 회원들. 강현숙, 김득심, 김주리, 김지영, 문계남, 박정애, 박경, 백경인, 이은정, 이을진, 이해영, 정명희, 정승은, 조영숙, 조옥희, 채명희, 한지우.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진도에서 한바탕 '악단광칠' 놀음

국립남도국악원 초청공연 25일 진악당 60분 콘서트

국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공연하는 그룹 '악단광칠'이 진도를 찾는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25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에서 '악단광칠' 초청공연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악단광칠은 사단법인 '정가악회'의 유닛그룹으로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결성됐다.

악단광칠은 60분 동안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절묘하게 엮은 다양한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전자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국악기와 전통 보컬만으로 승부한다.

강렬하고 유쾌한 밴드 사운드가 기대되는 이번 공연에서 △위로곡 '와대배' △서해안 배연신긋의 뱃노래를 재해석한 '여차' △황해도 무속의례 만수대탁구에서 영감을 얻은 '리크나우그나드카' △북청 사자놀음의 장단과 통소가락을 모티브로 재해석한 '북청'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악단광칠 공연은 무료다. 국립남도국악원은 공연 전후 진도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또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12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 (<https://jindo.gugak.go.kr>) 또는 장악과 (061-540-4042)로 문의.

도선인 기자

전남도립미술관, 소장품 구입 공모

전남 미술사에 중요한 우수작품 27일까지 접수...전남 출신 우대

전남도립미술관은 미술사적으로 가치 있는 소장품 확보를 위해 2023년 상반기 소장품 구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한국 근·현대미술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미술사적 작품 △전남 미술사 맥락을 살필 수 있는 주요 작가들의 작품 △전남지역의 역사나 자연적 특징을 소재로 한 작품 △동시대 미술 경향을 이끌어가는 대표작가의 작품 등의 소장품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 △전남 출생 △전남에서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을 이수한 자 △전남지역 대학(원)에서 미술 관련 학과를 재학 또는 졸업한 자 △전남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자 등이 우대된다.

신청 자격은 작가, 작품 소장자, 화랑, 법인 관련자 등 작품 소장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작품 수는 개인 신청자는 1점, 화랑·법인 신청자는 최대 2점이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작품수집추천위원회와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집 적정성 평가와 가격심의를 거쳐 구입 작품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접수는 등기우편을 통해서만 받고 있으며 오는 27일 전남도립미술관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립미술관 누리집 (<https://artmuseum.jeonnam.go.kr/>) 또는 (061-760-3210)에 문의.

도선인 기자

마한에서 보내는 슬기로운 취미 생활

신기한 보물수레 이야기 등 마한유적권 체험 프로그램 어린이·초등학생·성인 대상 광주시 홈페이지 통해 신청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마한유적체험관에서 2023년 상반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체험 프로그램은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창동 유적에 대한 시민들의 쉬운 접근을 위해 기획됐다.

유아(5-7세) 대상 프로그램은 △신기한 보물수레 이야기와 △신창동 유물액자 꾸미기가 있다. 어린이가 고고학자가 되어 신창동 유적의 발굴조사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어린이 집과 유치원 등 단체는 매주 화~수요일 오전 10시 20분에, 부모님과 개별적으로 방문한 유아는 매주 목·금요일 오후 4시에 참여할 수 있다.

4월8일부터 6월24일까지 매주 토요일 10시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신창동 토기제작공방 '구멍 송송 토기 시루 만들기'는 시루를 직접 데살기 방식으로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으로 신창동 사람들의 식생활과 토기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나는 신창동 디자이너 '마크라메(손으로 하는 뜨개질) 리스만 만들기'는 마크라메 실을 사용해 장식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우리나라 전통 회화인 민화를 이용해 병풍과 쇼팽백, 부채 등을 만들어 보는 △어린이 문화교실도 있다.

성인이 참여할 수 있는 '신창동 목기공방'은 유적에서 출토된 다양한 목기 유물을 모티브로 한 체험프로그램이다. 직접 칼로 나무를 깎고 다듬어 여러 가지 생활 소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4월·5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은 무료로 운영되며, 초등학생과 성인 대상 체험은 별도의 재료비가 소요된다.

체험 신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www.gwangju.go.kr)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홈페이지 (www.gwangju.go.kr/gjhf)를 통해 가능하다. 각각 교육 2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062-954-6794-7)로 문의.

최경화 광주역사민속박물관장은 "이번 상반기에 진행되는 마한유적체험관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이 좀 더 친숙하게 신창동 유적을 접하고 마한 문화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광주여성들의 삶 엿보는 '두흠길' 떠나요

광주여성가족재단 3~4월 투어 양림동 일대 코스별 1시간 소요

광주여성가족재단은 3~4월 동안 남구 양림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광주여성사체험로드 '두흠길' 투어에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두흠길 투어 코스는 △광주근대여성교육 관련 콘텐츠를 담은 두흠길과 △광주여성독립운동 관련 콘텐츠를 담은 백심단길 등 2개로 구성됐다. 코스별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이고 해설사가 함께 한다.

투어는 연중무휴 하루 2번 △오전 10시 △오후 2시에 가능하며 2명 이상 신청 가능하다. 투어 신청은 온라인 링크 (<https://forms.gle/rKrKhrs3TdsEnUdu9>) 또는 광주여성가족재단 성평등문화팀 (062-670-0562)으로 하면 된다. 투어를 원하는 날짜 2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된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지난해 두흠길 투어를 시범 운영했다. 올해 두흠길 속 여성 인물과 역사적 사실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코스와 시나리오를 재 정비

했다. 이번 3~4월 투어의 경우, 광주 남구 양림동 문화공간에서 광주여성인물들의 어록을 필사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두흠은 곡식의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남장로교회 위대한 선교사 7인에 선정된 서서평 선교사가 사후 유산으로 남긴 보리쌀 두흠을 상징하는 말이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올해 하반기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여성사 관점으로 구성한 '홍단심길' 투어 코스를 개발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서서평, 현덕신 등 광주여성인물의 일러스트가 그려진 엽서도 제작 중에 있다.

도선인 기자